



現代大學 CONTEMPORARY LITERATURE

통권 786호

2020년 6월 1일 인쇄 발행
2020년 6월호
제66권 제6호

회 장 | 양숙진
발행인·편집인 | 김영정

편 집 | 윤희영 · 주진형 · 이주이
출 판 | 김현지 · 조영은 · 임소정 · 박고운 · 이준환
디자인 | 권빛나 · 민희라 · 허성준
저작권 | 모회진
영 업 | 홍영기 · 박치우 · 차은영 · 신혜진
관 리 | 김계영 · 김정희 · 노민지 · 최슬아 · 정유혜

발 행 | (주)현대문학

주 소 | (06532)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잠원동, 미래엔)
전 화 | (02)2017-0280
팩 스 | (02)516-5433
www.hdmh.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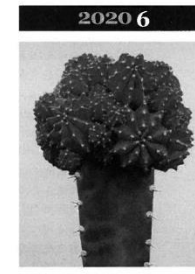
인 쇄 | (주)미래엔

등록번호 | 제 라-132호
ISSN | 1227-2345

© (주)현대문학 2020

정가 10,000원

본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원고료(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표지 |
『Untitled 1106』, 2018
Oil on canvas, 162.1 x 130.3cm
© 이광호
(사진 : 진병철 이미지제공 : 국제갤러리)



MiraeN

『Untitled 4359』, 2018, Oil on canvas, 100 × 125cm © 이광호
(사진: 진방집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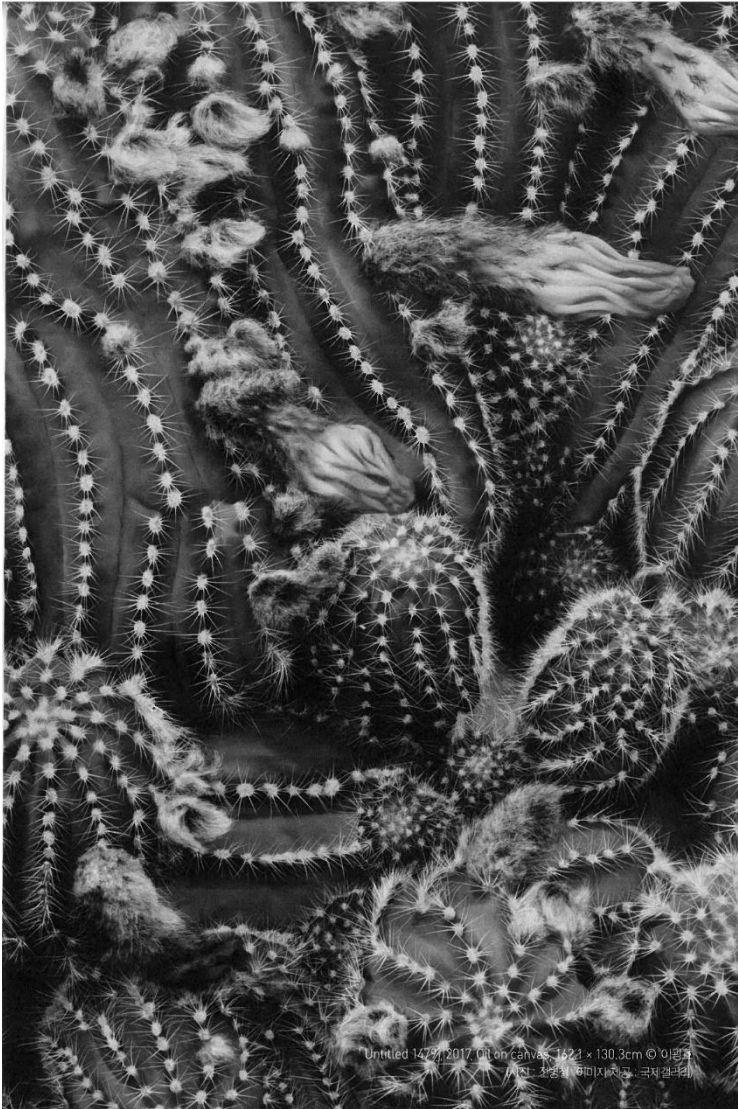
Mirae 

「Untitled 4463」, 2018, Oil on canvas, 112.1 x 145.5cm © 이광호
(사진 : 진병철 이미지 제공 : 국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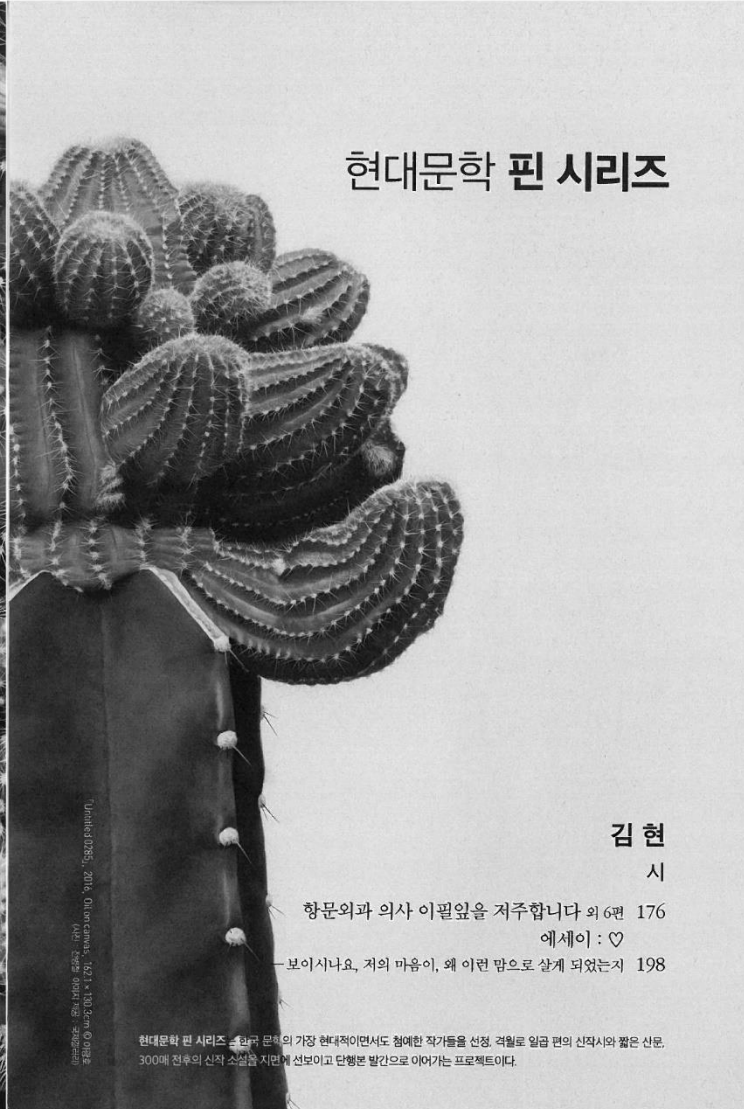


全北도아트스株式会社

「Untitled 4643_2019, Oil on canvas, 91 x 116.8cm © 이광호
(사진 : 전병철 이미지 제공 : 국제갤러리)



Untitled 1479, 2017, Oil on canvas, 162 x 130.3cm © 이광우
출판: 최정원, 허미지,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문학 핀 시리즈

김현
시

항문외과 의사 이필요를 저주합니다 외 6편 176

에세이 : ♡

—보이시나요, 저의 마음이, 왜 이런 맘으로 살게 되었는지 198

현대문학 핀 시리즈는 한국 문학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참예한 작가들을 선정 격월로 일곱 권의 신작시와 짧은 산문, 300여 권의 신작 소설을 지면에 선보이고 단행본 발간으로 이어가는 프로젝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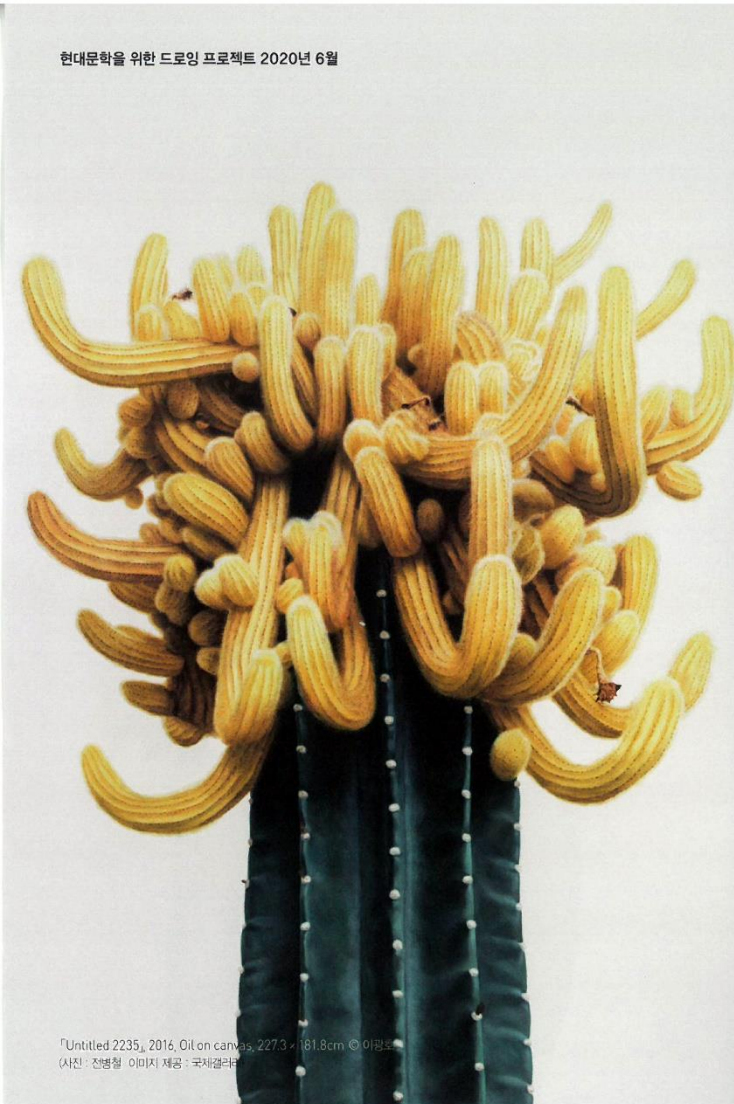


현대문학을 위한 드로잉 프로젝트 2020년 6월



「Untitled 1358」, 2017, Oil on canvas, 162.1 × 130.3cm © 이광호
(사진: 전병철,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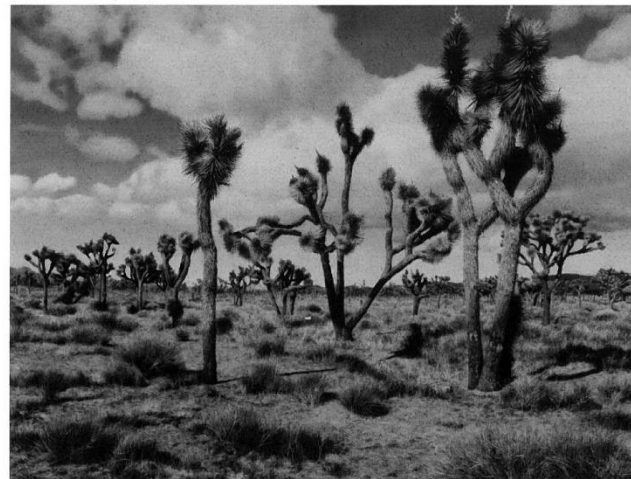
현대문학을 위한 드로잉 프로젝트 2020년 6월



「Untitled 2235」, 2016, Oil on canvas, 227.3 × 181.8cm © 이광호
(사진: 전병철,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Untitled 4761』, 2019, Oil on canvas, 130.3 x 162.1cm © 이광호
(사진: 진병철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Untitled 5929』, 2019, Oil on canvas, 135 x 180cm © 이광호
(사진: 진병철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Untitled 4806」, 2019, Oil on canvas, 112.1 × 145.5cm © 이광호
(사진: 전병철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표지작가의 말

선인장들은 인물들에 비해 훨씬 드라마틱하고 강렬하다. 이것들은 마치 인물화의 모델들이 감추고 있었던 내면의 어떤 감정들이 폭발시킨 단단한 표면의 구름들처럼 보인다(실제로 어떤 선인장은 버섯구름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동물적으로 다가올 만큼 육감적인 이 거대한 식물의 이미지들은 마치 대상의 내면을 파고들고자 하는 화가의 시선에 담긴 욕망에 비례하여 대상 스스로가 새롭게 더욱 강렬한 시선을 소구(訴求)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각각의 선인장 그림은 '선인장' 프로젝트 전체의 일부이자 그 전체의 구조를 함축하는 열개 혹은 열구라고 말할 수 있다. 각각의 인물화가 인물화 프로젝트 전체의 동일성과 구조를 함축하고 있듯이 하나하나의 선인장 그림 역시 전체의 메커니즘을 담고 있다.

—유진상(미술비평가),

이광호 국제갤러리 개인전 「Touch」(2010) 전시 도록 중에서

이광호 1967년 충북 청원 출생. 서울대 회화과 및 동 대학원 졸업. 2006년 창동 레지던시 작가로 선정되면서 「Inter-View」 시리즈 진행. 국내외 다수의 개인전, 그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등에서 작품 소장.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등 수상.